

일곱 번째 날_2월 24일 (수요일)

연대를 위한 기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사야 56:1 현대인의 성경>

미얀마에 정의와 평화를!

하나님,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을 치켜들고
시민들은 대규모 거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들 곳곳에 군 병력을 실은 장갑차가 배치되고
인터넷이 차단되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체포 또는 구금되었으며
미얀마 제2 도시 만레이에서 벌어진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군경이 실탄을 사격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또한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미얀마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내전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군부의 강경진압과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깊은 혼란과 불안 속을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종교와 인종과 국경을 넘어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게 하옵소서.

미얀마의 혼란한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게 하옵소서.
이번에야말로 정의, 인권, 민주, 자유와 평화가 제대로 서게 하옵소서.
미얀마와 그 백성들이 패권 강대국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미얀마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속히 미얀마에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덟 번째 날_2월 25일 (목요일)

아픔이 있는 곳에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요한복음 1:5 공동번역성서>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별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그대를 만나러 팽목항으로 가는 길에는 아직 길이 없고
그대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는 아직 선로가 없어도
오늘도 그대를 만나러 간다
푸른 바다의 길이 하늘의 길이 된 그날
세상의 모든 수평선이 사라지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통곡하고
세상의 모든 등대가 사라져도

나는 그대가 걸어가던 수평선의 아름다움이 되어
그대가 밝히던 등대의 밝은 불빛이 되어
오늘도 그대를 만나러 간다
한배를 타고 하늘로 가는 길이 멀지 않느냐
혹시 배는 고프지 않느냐
엄마는 신발도 버리고 그 길을 따라 걷는다
아빠는 아픈 가슴에서 그리움의 면발을 뽑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어주었는데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긴 먹었느냐
그대는 왜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것인지
왜 아무리 보고 싶어 해도 볼 수 없는 세계인지
그대가 없는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잊지 말자 하면서도 잊어버리는 세상의 마음을
행여 그대가 잊을까 두렵다
팽목항의 갈매기들이 날지 못하고
팽목항의 등대마저 밤마다 꺼져가는
나는 오늘도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봄이 가도 그대를 잊은 적 없고
별이 저도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진실이 가리워질까요? 덮는다고 정의가 덮어질까요?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아파하는 이들 눈물을 닦아주고, 거리에서 노숙하며 진실을 요구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진실과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힘과 뜻을 모아 진상을 밝히고 불의를
바로잡아 하늘의 뜻이 이뤄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 정호승 시인 사진: 김찬국 목포 2015

아홉 번째 날_2월 26일 (금요일)

일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여러분이 고용한 가난한 품꾼이 여러분의 동족이든 여러분의 땅에 사는 외국인이든 여러분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의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하십시오.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으면 그가 그 일을 여호와께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4:14-15 현대인의 성경>

노동의 새벽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설은 세 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을 다 짜내어 바동치는
이 전쟁 같은 노동일을

오래 못 가도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허깨비 같은
스물아홉의 내 운명을 날아 빠질 수만 있다면
아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멍에를,
이 운명을 어쩔 수 없지

늘어쳐진 욕신에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노동을 위하여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소주보다 독한 깡다구를 오기를
분노와 슬픔을 붓는다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기어코 깨뜨려 솟구칠
거치른 땀방울, 피눈물 속에
새근새근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잔을
돌리며 돌리며 붓는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

구약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최초 노동은 하나님 창조활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동합니다. 따라서 노동은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인간을 위한 것이며 그 반대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노동(임금, 시간, 환경 등)으로부터 인간의 소외는 더욱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어이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집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일터의 평화가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전쟁 같은 일터가 아닌 안전한 일터가 되게 하시고,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 번째 날_2월 27일 (토요일)

어린이들에게 평화를



그때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 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9:13-14 현대인의 성경>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소말리아, 시리아, 수단, 이스라엘-아랍... 분쟁과 전쟁이 이 지역 어린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라우마로 인해 말을 할 수 없게 된 아이들, 평화란 것을 알지 못하고, 평화 속에서 생활한 체험이 전혀 없는 세대의 어린이들 그리고 총을 들고 싸워야만 했던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2014년 말, 2억 3천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분쟁 중인 국가와 지역에 살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꿈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물려줍시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게 하시고, 어린이들이 평화의 세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중심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한 번째 날_3월 1일 (월요일)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행진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이라.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큰일을 하셨으니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라! <누가복음 1:46-49 현대인의 성경>

평화

누구라도 그를 부르려면
속삭임으로 안 된다.
자장가처럼 노래해도 안 된다.
사자처럼 포효하며
평화여, 아니 더 크게
평화여, 천둥 울려야 한다.
그 인격과 품위
그 아름다움과 평등함
그가 만인의 연인인 점에서도
새 천년 이쪽저쪽의 최고인물인
평화여 부디 오너라고
사춘기의 순정으로
피멍 무릅쓰고 혼신으로
연호하며 불러야 한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통일운동, 평화운동이야말로 오늘 우리 민족과 여성들에게 지워진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제라는 사실을 천명하며, 이 땅에 평화정신이 꽃을 피우고 군사 안보 대신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인간중심의 안보가 보장되는 통일복지사회가 이뤄지는 그 날을 위해, 평화의 대행진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1997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선언문 중에서)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성들이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주인답게 살며 인권과 정의와 평화와 통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 김남조·시인 사진: womencrossdmz

열두 번째 날_3월 2일 (화요일)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 줍니다. <베드로전서 4:8 현대인의 성경>

작은 평화

어항 앞에 있으면
우리도 평화롭게 노니는
금붕어가 된다.
화려한 말보다는
아주 작은 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우리도 행복하게 된다.
믿음이 있는 말을 주고받는
정직한 세상에서
우리도 살고 싶다.
금빛 지느러미처럼
아름답고 밝은 마음으로
미움 없이 입 맞추며
우리도 살고 싶다.

열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